

승부사 구분준 회장…“1등 DNA 새길 것”

구분준, LX홀딩스 초대 대표 선임
LG상사·하우시스 등 5개사 편입
자산총액 약8조…계계순위 50위권
신사업 등 통해 종합 그룹사 목표
구 회장 아들 구형모씨 상무로 합류



구분준 회장

‘승부사’ 구분준 L
G그룹 고문이 이끄는
신설 지주 회사인 LX
홀딩스(LG그룹에서
계열 분리)가 3일 공
식 출범했다. LX홀딩
스는 3일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구분
준 LG 고문을 LX홀
딩스 초대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했다.

LX홀딩스 출범에 따라 LG상사, LG
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 MMA가 자
회사로 LG상사의 자회사 판토스가 손
회사로 편입됐다. 5개사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6조 248억 원, 영업이익은
4025억 원이다.

LX홀딩스를 포함한 자산총액(공정자
산)은 8조 원 안팎이며 재계 순위는
50위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
표한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보면
자산 규모가 8조90억 원인 아모레퍼시
픽이 52위였다. 재계에서는 LX홀딩스
의 순위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
다.

LX그룹 계열사 특징 및 향후전략			
기업명	변경 예정 사명	특징	향후 예상 전략
LG상사	LX글로벌 또는 LX인터내셔널	21개국 47곳 글로벌 네트워크 갖춘 종합상사	친환경, 전자상거래, 헬스케어 등 7개 신사업 추가
판토스	LX판토스	육해공을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물류회사	IPO 추진 가능, 글로벌 톱10 물류기업 도약
LG하우시스	LX하우시스	종합 인테리어, 건설 자재 기업. 국내 건설재 1위	자재사업 고도화, B2C 시장 적극 공략
실리콘웍스	LX세미콘	국내 1위 팹리스(반도체 전문설계 기업)	SIC 전력반도체, MCU 등 신사업 진출
LG MMA	LXMMA	산업용 소재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국내 점유율 1위	신규 사업 발굴, 생산성 향상

●“변화 두려워 말고…지속가능한 미래 연결”

구분준 회장은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에서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받았으
며, 1985년 금성반도체에 부장으로 입
사했다.

1989년 LG전자 이사에 올랐고 이후
LG반도체, LG필립스LCD(현재 LG디
스플레이), LG상사 등에서 대표이사를
맡아 각각의 회사를 세계 최고 기업으
로 성장시키며 ‘독한 승부사’라는 별명
을 얻었다. 기술에 대한 열정과 과감한
추진력이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는 평
가다.

LX홀딩스 출범사에서도 구분준 회장
의 승부사 기질을 엿볼 수 있었다. “도전
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1등 DNA를 LX 전체에 뿌리내리
자”고 강조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끈
질기게 실행해 LX의 핵심가치인 ‘연결’,
‘미래’, ‘사람’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
래’로의 연결’을 이루자는 것이 그의 취임
첫 일성이다.

구분준 회장의 경영 철학은 기업 CI
(Corporate Identity)에도 고스란히 담
겨있다. LX의 ‘L’은 연결(Link)을, ‘X’

는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 지속 가능하
미래(Next)를 의미한다.

●신사업 개척해 종합 그룹사로 성장한다

LX홀딩스는 신사업을 중심으로 한
그룹 체질 개선과 적극적인 인수·합병
(M&A) 등을 통해 LG그룹에서 분사했
던 LS그룹, GS그룹과 같은 종합 그룹사
로 성장할 전망이다.

LX그룹을 이끌 핵심 자회사는 LG상
사다. LG상사는 최근 헬스케어, 관광·
숙박, 통신판매·전자상거래, 친환경 등
다수의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
다. 특히 친환경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
다. LG상사는 최근 “이차전지 원료인
니켈 등 미래 광물 분야와 신재생, 자원
순환 등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그룹 핵심 축인 실리콘웍스
도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할 전망이다.
실리콘웍스는 국내 1위 팹리스(반도체
전문설계) 기업으로, 현재 디스플레이
구동드라이버(DDI)가 주력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실리콘웍스가 향후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 반도체, 마이크로컨

트롤러유닛(MCU) 시장에도 진출할 것
으로 보고 있다.

물류 기업인 판토스는 상장(IPO) 가
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LX
그룹이 판토스 상장을 통해 유치할 자금
을 신사업에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 인테리어 및 건설자재 기업인 LG
하우시스도 B2C 시장 확대 등으로 사업
영역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사명 변경도 추진한다. LG상사는 LX
글로벌 또는 LX인터내셔널, 판토스는
LX판토스, 실리콘웍스는 LX세미콘, L
G하우시스는 LX하우시스, LGMMA는
LXMMA로 각 사의 임시주총을 거쳐 하
반기 내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구분준 LX홀딩스 회장의 외아
들인 구형모(34)씨는 이달 초 LX홀딩스
의 경영기획담당 상무로 합류했다. LX
홀딩스에 따르면 구형모 상무는 미국 코
넬대학을 졸업하고 LG전자 일본법인에
서 책임(차장급)으로 근무했으며, LX홀
딩스로 이동하면서 상무로 승진했다. 재
계에서는 구형모 상무가 신사업을 추진
하며 경영 보폭을 넓힌 뒤, 경영권 승계
작업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보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중화학

스포츠동아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15

LG화학, ESG기업 육성 펀드에 1500억 투자 배터리 소재등 친환경 산업 소재 분야 발굴

LG화학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유망 기업 육
성 펀드에 핵심 투자자로 참여해 배터리 소재 및 친환경
소재 분야 국내기업 발굴과 육성에 나선다.

LG화학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IMM크레딧솔루션
이 운영하는 KBE(Korea Battery & ESG) 펀드의 핵심
투자자로 1500억 원을 출자한다고 11일 밝혔다. LG화
학이 외부 자산운용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핵심 투자자
로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 영역은 양극재·음극재 제조, 배터리용 주요 금
속 재활용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페플라스틱 등
고분자 제품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등을 포함한
친환경 산업 소재 분야이다.

LG화학은 ESG경영 가속화를 위해 양극재 등 전지소
재, 바이오 플라스틱, 이모빌리티경량화·전장화 소재
등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육성하고 있다.

신학철 부회장은 “이번 투자는 LG화학이 국내 유망
한 중소·중견 기업들과 함께 ESG 산업 생태계를 강화
하는 것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 남동발전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진출

현대중공업그룹 정유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대표 강달
호)가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현대오
일뱅크는 최근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화천)과 ‘신재생에
너지 사업 공동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그룹차원에서 발표한 ‘수소 드
림(Dream)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행보다. 두 회사는 수
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공동 추
진을 검토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수소를 생산해 공급하
고, 한국남동발전은 연료전지 발전소 운영 노하우를 제
공하며, 합작 발전 법인에서는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양사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
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정유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대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 8500억 원 규모 해양설비 수주

한국조선해양은 11일 싱가포르 조선사인 케펠스와 함
께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사가 발주한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하역설비(FPSO) 1기(총 공사 금액 2조5000억 원)
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
이 수주한 선체의 총 계약 금액은 8500억 원이다. 한국
조선해양은 FPSO의 부유와 저장기능을 하는 선체(Hul
l) 공사를 수행하며, 케펠은 원유를 생산 및 처리하는 상
부설비 제작을 담당한다. 이번에 수주한 FPSO는 길이
345미터, 높이 60미터, 너비 34미터에 총 중량 12만
8000톤 규모로 하루에 18만 배럴의 원유와 720만 입방
미터(m³)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SK(₩), ‘솔리드에너지’에 투자…차세대 리튬메탈 배터리 선점

2018년 이후 2번째 투자…3대 주주 지위 확보
GM과 리튬메탈 배터리 생산 공장 설립 예정

투자전문회사인 SK(₩)(대표이사 장동현)가 전기차
핵심 부품인 차세대 리튬메탈(Li-Metal) 배터리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SK(₩)는 리튬메탈 배터리 개발사인 솔리드에너지시스
템(Solid Energy Systems, 이하 솔리드에너지)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 약 300억
원을 투자한데 이은 두 번째 투자로 3대 주주 지위를 확
보했다.

리튬메탈 배터리는 배터리 부피와 무게는 크게 줄이
고 주행 거리는 2배 이상 크게 늘릴 수 있어, 글로벌 주
요 배터리 개발사와 완성차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솔리드에너지는 최근 시제품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지난 3월에는 GM과 공동 연구 계약까지 체결했다. 상
업화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다.

솔리드에너지와 GM은 미국 보스턴 인근에 2023년
까지 리튬메탈 배터리 시험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
며, 2025년 최종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
는 솔리드에너지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상장 추진 시 SK(₩)의 지분 가치는 크게 높
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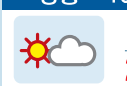
김양택 SK(₩) 첨단소재 투자센터장은 “SK는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1위 동박 제조사 왓슨과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업인 에스파워테크닉스 투자 등을 통해 전기
차 핵심 소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력해
왔다”며 “향후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분야에서 신소
재와 기술을 선점해 글로벌 첨단소재 기업으로 입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K(₩)가 전기차 핵심 부품인 차세대 리튬메탈 배터리 시장 공략을
위해 솔리드에너지시스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사진은 솔리드
에너지시스템이 개발한 리튬메탈 호일. 사진제공 ∣ SK(₩)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12일(수) 음력: 4월 1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응달샘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 줄기의 형상이다. 어둡고 답답 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 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거망 동을 삼가라. 그러나 지적인 일 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밝은 미 래를 암시해주고 있다. 오늘은 지살이며 인생일이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 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 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 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오늘은 용 이 원승이를 만나는 날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 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라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 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 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오늘은 뱀 이 원승이를 만나는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 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 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역마 일이다. 돈에 역마살이 붙었다.				마음을 끈게 가지고 있으면 이 로움이 있다. 현재는 능력을 인 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뻣뻣치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 력은 마침내 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겉살일이다. 부동산을 속아서 비싼 값에 구입하는 경 우 등 실수가 있는 날이다.			
감언이설에 조심한 한다면 일 을 벌이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 이다. 적극적으로 나가며 최선을 을 다하라. 거래에 있어서는 강 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 이 효과적이다. 원승이 날로 원 승이가 원승이를 만났으니 잘 났다고 경쟁하는 형상이다.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운 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고 만사형통할 운세이다. 그 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 가집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 화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오늘은 장성이 망 신을 만난 날이다.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 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 으니 조심하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되겠으니 노력하라. 오늘은 역마일로 새 로운 환경에 들뜨기 쉽다.				자축을 역제해야겠다. 낭비벽 이 생김으로써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까 두렵다. 또한 사 치는 금물이니 집투를 없애야 하고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오 늘은 욕심으로 남은 안보이고 자신만 보이는 날이다.			

오늘의 날씨				12일(수)	
서울	10/0	인천	20/0	춘천	10/20
	15 28		15 25		9 27
강릉	10/10	대전	20/0	전주	20/0
	12 21		13 27		15 27
광주	20/20	대구	20/20	부산	30/30
	16 28		13 23		15 21
창원	30/30	제주	60/30	지역	간수 화를 (오전/오후)
	14 23		17 22	날씨	최저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76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릉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